

다카사고 신사 가을 축제

매년 10월 10일과 11일에 이틀 동안 열리는 축제에 8대의 야타이 수레를 중심으로 활기찬 반주를 연주하는 행렬이 펼쳐집니다. 첫날에는 다카사고 신사에서 다카사고의 각 거리를 따라 신여가 행진합니다.

각 지구의 우지코(신사의 신도)가 야타이와 단지리(축제용 장식 수레)를 끌면서 신여 뒤를 따라 행진합니다. 도중에 있는 오타비쇼(신이 행렬 도중에 휴식을 취하는 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과 무병식재를 기원하는 등의 의식이 거행됩니다.

또한, 신여를 배에 싣고 가코가와 강에 흘려보내는 신행 행렬 '후나토교(船渡御)'도 있습니다. 후나토교는 3년에 1번 진행되며,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서 발전, 번영한 다카사고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축제 둘째 날에는 각 마을의 수레가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 협력과 경쟁의 정신으로 힘을 겨룹니다. 둘째 날의 하이라이트는 가마꾼들이 수레를 서로 밀치며 이를 보고 있는 신들에게 상대적인 힘을 과시하는 경기입니다.